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2020. 11

김세중·김혜란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Executive Summary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인 생명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판매채널 등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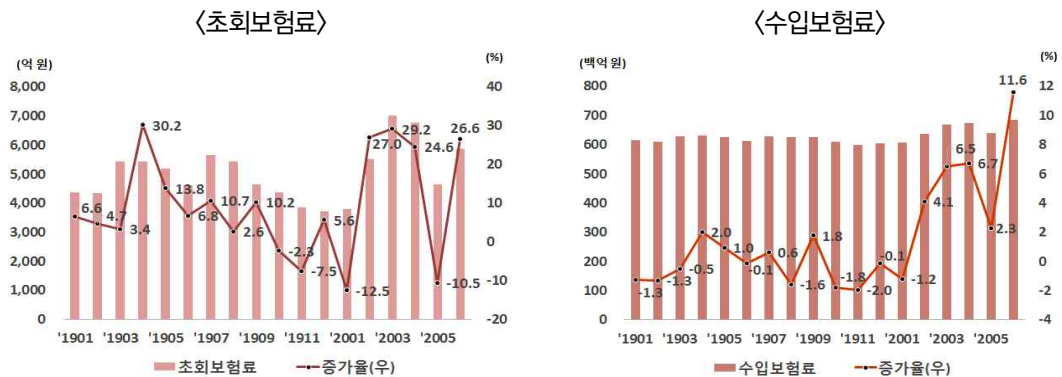
종목별로는 사망보험이 2020년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고성장 하였고 저축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로 상반기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인 생명보험 해지율은 3월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수준이다. 사망보험은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 하였으나 4월 이후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 3월을 제외하고 보험료 규모가 감소 또는 정체되는 추세인 반면 저축보험의 경우 2월 이후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상반기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판매가 급증한 원인은 예·적금 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인해 펀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수익을 저축보험 판매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월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모두 3월 해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월과 5월에는 예년 수준보다 낮아졌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 생명보험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 가입여력 축소에 대비하여 신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저축보험 판매 확대가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I 검토 배경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확산은 개인 생명보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인 생명보험(일반계정 사망, 연금, 저축보험)시장은 고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전염병의 확산은 급격한 소비위축을 가져와 개인 생명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설계사와 같은 대면영업 채널의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임
 -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상반기 월별 초회보험료는 5월을 제외하고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보험료 또한 크게 증가함
 - 이는 개인 생명보험의 판매가 코로나19 관련 요인 이외에도 이자율 및 금융시장의 변화, 관련 제도의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임

▶ **그림 I-1** 월별 개인 생명보험 초회 및 수입보험료 추이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계정에 해당하는 사망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시장이 2020년 상반기 어떤 추이를 나타냈는지 살펴보고자 함
 -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에 필수적인 백신의 개발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판매채널 등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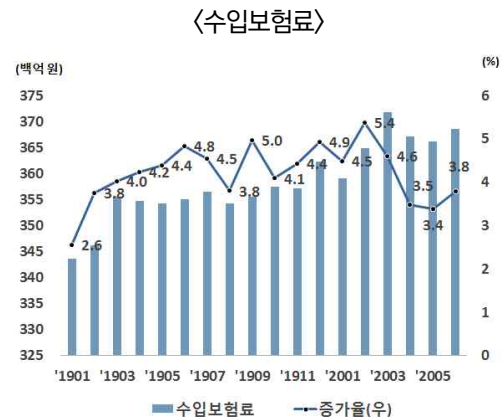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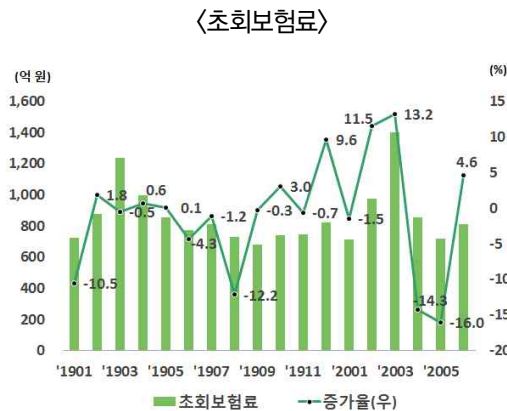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1.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추이

■ 2020년 상반기 사망보험은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고성장 하였으나 4월 이후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

- 사망보험 초회보험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과 3월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장성보험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절판 마케팅 효과가 코로나19에 의한 영업 위축을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그러나 4월과 5월은 절판효과가 소멸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3%, 16.0% 감소하였음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2월과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4.6% 증가하였으나 4~6월에는 3%대로 증가세가 둔화됨
-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절판효과와 같은 사망보험의 일회성 판대 확대 요인이 없고, 인기를 끌었던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의 영업 위축은 확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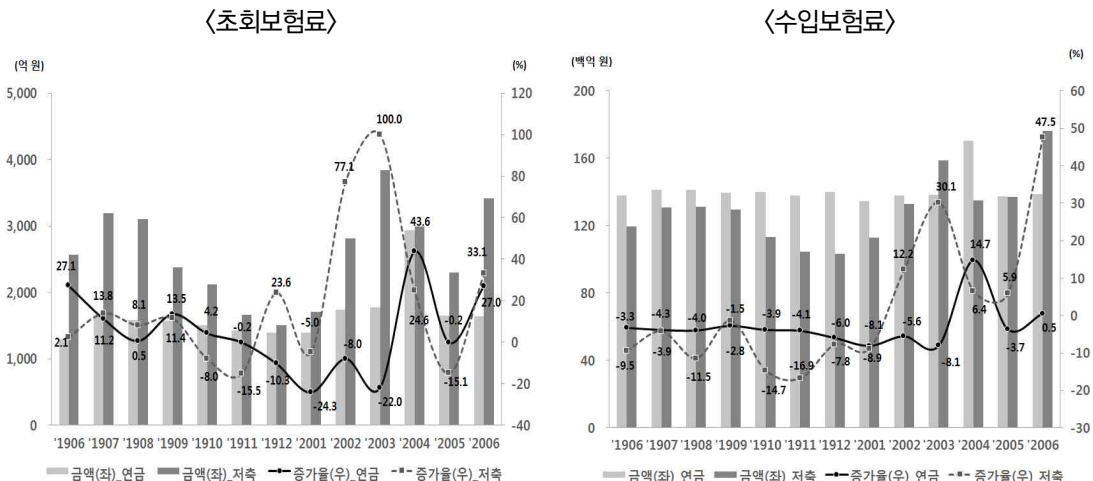
▶ 그림 II-1 월별 사망보험 초회 및 수입보험료 추이



■ 연금보험의 경우 4월을 제외하고 수입보험료 감소 또는 정체를 지속하고 있으나, 저축보험의 경우 2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2~3월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8.0%, 22.0% 감소한 반면 저축보험인 생사혼합보험은 초회보험료가 77.1%, 100.0% 급증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음
- 2020년 4월에는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초회보험료가 각각 24.6%, 43.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6월에도 각각 27.0%, 3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4월을 제외하고 감소 또는 정체를 지속 중이나, 저축보험의 경우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오히려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II-2**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초회 및 수입보험료 추이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사망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은 주요 판매채널이 상이하며, 판매채널의 차이가 2020년 상반기 성장성의 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말 초회보험료 기준 사망보험의 판매채널 비중은 대면채널인 설계사와 대리점 비중이 78.5%이며, 따라서 절판효과를 제외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을 것임
- 연금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비중이 77.7%로 높지만 설계사와 대리점 비중도 22.0%로 저축보험의 4.4%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축보험에 비해 대면영업 채널의 위축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을 것으로 보임

- 저축보험은 방카슈랑스 비중이 95.4%로 절대적이며, 코로나19 이후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보험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고성장함
 - 2020년 2월 이후 예금기관 저축예금 금리는 빠르게 하락한 반면 보험회사 공시기준이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2020년 3월 이후 1% 이상 금리차가 지속되고 있음

▶ 표 II-1 개인생명보험 종목별 판매채널 비중(초회보험료, 2019년 말 기준)

(단위: %)

구분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기타
사망보험	0.1	52.9	25.6	0.0	21.2	0.1
연금보험	0.2	15.0	7.0	0.0	77.7	0.1
저축보험	0.0	2.7	1.7	0.0	95.4	0.2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그림 II-3 예금기관 저축예금금리와 보험회사 공시기준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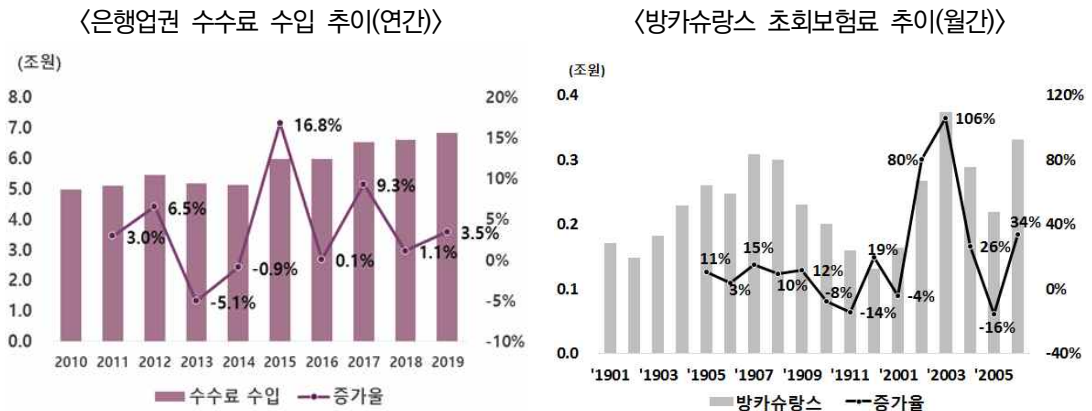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입을 포함하는 수수료 수입은 은행업권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은행업권은 생명보험회사의 저축보험 상품 판매를 크게 확대함
 - 은행업권의 영업수익은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구분되며, 방카슈랑스 판매를 통한 수익은 수수료 수익에 포함됨

-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 비중은 약 9:1 수준이며, 펀드 판매 수수료, 방카슈랑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수수료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2월과 3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0.5%, 105.7% 급증했으며, 4월과 6월에도 각각 26.2%, 33.5% 증가함
-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상반기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판매가 급증한 원인은 예·적금 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인해 펀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수입을 저축보험 판매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임

▶ **그림 II-4** 은행업권 수수료 수입과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금감원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개인 생명보험 해지율 추이

- 2020년 상반기 월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모두 3월 해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6월에는 예년 수준으로 하락함
- 2019년 사망보험 월별 해지율은 약 0.75~0.85% 수준을 나타냈으나 2020년 3월에는 0.89%로 증가한 후 4월 이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함
- 연금보험 월별 해지율은 2019년 약 0.7~0.8% 수준에서 2020년 3월 0.91%로 증가한 후 4월과 5월 각각 0.66%, 0.62%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그림 II-5** 개인 생명보험 종목별 월별 해지율 추이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저축보험은 1% 내외 수준을 보이던 월별 해지율이 2020년 3월 1.29%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4월과 5월에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개인 생명보험의 일시적인 해지 증가가 관찰되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해지율이 빠르게 정상화된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망보험 보험료 증가는 대형사와 외국계 보험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저축보험의 고성장은 대형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상반기 사망보험 중 종신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의 초회보험료가 각각 27.9%, 52.3% 증가함
- 저축보험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대형사의 초회보험료가 238.5% 증가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초회보험료는 각각 15.2%, 27.1% 감소함
- 저금리의 심화로 자산운용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본부담이 낮은 대형사가 방카슈랑스를 통해 공격적인 규모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임

III

시사점

-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은 사망보험의 절판효과 및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보험 고성장에 힘입어 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사망보험의 성장은 일시적인 성장으로 보이는 반면 저축보험의 고성장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사망보험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소비자의 보험가입 여력이 축소되고 사망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인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이 지연되면서 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은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음
 - 저축보험의 경우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저축보험의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연금보험의 경우 은행 예·적금 상품의 대체상품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요 확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장수위험 등의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 확대도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저축보험을 중심으로 외형 확대에 나서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나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저축보험 판매 확대가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음
 - 저축보험의 확대는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은행업권의 이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도 외형성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저축보험의 확대는 코로나19의 간접적인 효과로 국제회계제도 IFRS19의 도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도 연기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저축보험 판매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도 일부 기여함
 - 그러나 현재 공시이율 수준이 2% 초반 대이나 저금리 심화로 공시이율을 상회하는 수익성 높은 자산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보험의 확대는 이차 역마진을 확대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 가입여력 축소에 대비하여 신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020년 11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과감한 재정확대로 급격한 소비 위축 우려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를 보일 경우 개인의 보험가입 여력은 크게 위축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시장의 축소에 대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저자약력

- 김 세 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 김 혜 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hrkim@kiri.or.kr)

CEO Report 2020-10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발 행 일	2020년 11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